

직설법적 조건문의 성향 이론*

노 호 진
(서울대 철학과 강사)

1. 들어가며

‘조건문(conditionals)’은 연결사 ‘만약(if)’을 두 요소 문장 A와 C에 적용하여 (적절한 변형을 거쳐) 형성되는 복합 문장을 말한다. 우리는 조건문을 어떤 어려움 없이 잘 사용하고 있지만, 조건문에 대해 만족할 만한 이론적 설명을 주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조건문들은 ‘직설법적 조건문(indicative conditionals)’과 ‘반사실적 조건문(counterfactual conditionals)’으로 구별되는데, 이 글에서는 직설법적 조건문에 논의를 한정할 것이다.¹⁾ 다음 문장들이 직설법적 조건문들이다.

- (1) 만약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이지 않았다면, 어떤 다른 사람이 죽었다.
(If Oswald didn't kill Kennedy, someone else killed Kennedy.)
- (2) 만약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이지 않는다면, 어떤 다른 사람이 죽일 것이다.
(If Oswald doesn't kill Kennedy, someone else will kill Kennedy.)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분을 축약한 글이다.

¹⁾ Edgington(1995), Bennett(2003) 참조. 한국어에서는 직설법적 조건문과 구별되는 것으로 ‘...이었던라면...이었을 것이다’로 표현되는 조건문들이 있다. 이것들이 아마도 가정법적 조건문 혹은 반사실적 조건문일 것이다. 정인교(2002), p.80 참조.

앞으로 '(A→C)'를 직설법적 조건문 '만약 A이면 C'의 축약 표현으로 사용할 것이고, '(A⊃C)'를 반사실적 조건문의 축약 표현으로 사용할 것이다.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가장 단순하고 잘 알려진 이론은 필자가 '실질 조건문 분석'이라고 부르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직설법적 조건문 (A→C)가 단순히 실질 조건문(material conditional) (A⊃C)와 같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실질 조건문은 진리 함수적인 복합 문장으로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실제로 직설법적 조건문이 실질 조건문이라면 직설법적 조건문의 사용과 (직설법적) 조건적 사고는 쉽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에는 잘 알려진 '실질 함축의 역설들(the paradoxes of material implication)'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문제보다는 우리가 직설법적 조건문을 언제 수용하는지 말해주는 '아담스 논제'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이 논제는 실질 함축의 역설들의 문제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근본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 아담스 논제

다음 '아담스 논제'로 알려져 있는 것은 우리가 직설법적 조건문을 언제 수용하고 언제 거부하는지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²⁾

$$(3) \text{ (아담스 논제) } a(A \rightarrow C) = b(C | A), \text{ 단 } b(A) \neq 0.$$

여기서 'a(A→C)'는 (A→C)의 수용 정도(degree of acceptance)를³⁾ 의미하고, 'b(C | A)'는 A라는 가정 하에서 C에 대한 조건부 믿음의

2) 아담스의 이 논제에 대한 주요한 기여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여졌다. Adams(1966), (1975) 참조.

3) '수용하다'는 '동의하다'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A에 대한 수용 정도는 확률로 볼 수 있다.

정도를 의미한다. 아담스 논제는 직설법적 조건문 ($A \rightarrow C$)의 수용 정도는 A라는 가정 하에서 C에 대한 조건부 믿음의 정도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오른쪽 항의 조건부 믿음의 정도 ' $b(C | A)$ '는 보통 두 절대적 믿음의 정도의 비 ' $b(A \& C)/b(A)$ '로 정의된다.⁴⁾ $a(A \rightarrow C)$ 가 충분히 높을 때 단순히 ' $(A \rightarrow C)$ 를 수용한다'라고 말한다면, 아담스 논제에 의해 A라는 가정 하에서 C에 대한 조건부 믿음의 정도가 충분히 높을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A \rightarrow C$)는 수용될 것이다.

아담스 논제는 많은 증거들에 의해 지지된다. 예컨대 높은 정도로 수용되는 조건문으로 '만약 폭설이 내린다면 도로는 미끄러울 것이다'를 보자. 이에 대응하여 폭설이 내린다는 가정 하에서 도로가 미끄러울 것이라는 조건부 믿음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 수용 정도가 매우 낮은 조건문으로 '만약 내가 일주일 정도 훈련한다면 나는 100m 세계 신기록을 달성할 것이다'를 보자. 이에 대응하여 내가 일주일 정도 훈련한다는 가정 하에서 내가 100m 세계 신기록을 달성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는 매우 낮을 것이다.

잭슨이 말한 것처럼 아담스 논제는 또한 램지 테스트에 의해서도 지지된다.⁵⁾ 램지 테스트는 ($A \rightarrow C$)를 수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A를 가정적으로 자신의 믿음 체계에 더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수정을 한 후, 수정된 새로운 믿음 체계가 C를 포함하는지 살펴보라고 말한다.⁶⁾ 우리의 믿음 체계를 확률 함수로 표상한다면, 이 과정은 A라는 가정 하에서 C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아담스 논제는 많은 증거들에 의해 지지되는 옳은 논제인 것 같으

4) 믿음의 정도(degree of belief)는 심리적인 믿음 기분의 세기라는 점에서 아니라, 행위자가 제시된 다양한 내기들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관찰하는 것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믿음의 정도로 1(완전한 믿음-확신)과 0(완전한 불신)을 포함한 그 사이의 값을 부여한다. 믿음의 정도는 정합적이기 위해 확률 이론의 공리들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논증이 있다. ' $b(X)$ '는 X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의미한다. 우리는 확률을 믿음의 정도로 해석하는 것에 의해 램지가 '부분적 믿음의 논리'라 부른 것을 얻을 수 있다. Ramsey(1926) 참조.

5) Jackson(1987), p.14.

6) Ramsey(1929), p.247 참조.

므로, 직설법적 조건문 이론은 이 아담스 논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질 조건문 분석은 이 아담스 논제를 설명할 수 없다. (진리 조건을 가지는) 문장 X에 대해, X를 수용하는 정도는 X가 참이라고 믿는 정도와 같을 것이다; X를 수용한다는 것은 X를 믿는다는 것이다. 직설법적 조건문 $(A \rightarrow C)$ 가 단순히 실질 조건문 $(A \supset C)$ 라면, $(A \rightarrow C)$ 의 수용 정도는 바로 $(A \supset C)$ 를 믿는 정도와 같을 것이다. 즉, ' $a(A \rightarrow C) = b(A \supset C)$ '가 성립해야 한다. 그러나 아담스 논제에 의해 $a(A \rightarrow C)$ 는 $b(A \supset C)$ 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b(C | A)$ 와 동일하다.

$(A \rightarrow C)$ 에 진리 함수적인 진리 조건을 부여하는 실질 조건문 분석이 아담스 논제를 설명할 수 없다면, $(A \rightarrow C)$ 에 어떤 비-진리 함수적 진리 조건을 부여하는 이론이 아담스 논제를 설명할 수는 없는가? 불행히도 이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해야 할 것 같은 이유가 있다. $(A \rightarrow C)$ 가 진리 조건을 가져서 $(A \rightarrow C)$ 의 수용 정도가 $(A \rightarrow C)$ 를 믿는 정도와 동일하다면 루이스의 사소성 결과는 (믿음 함수가 사소하지 않다는 가정 하에서) 아담스 논제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⁷⁾ 그래서 루이스의 사소성 결과는 $(A \rightarrow C)$ 가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사소성 결과로 인해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 조건적 이론들은 아담스 논제를 거부하거나 아담스 논제를 다르게 해석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 같다.

3. 직설법적 조건문의 성향 이론

맥키는 조건문을 참 또는 거짓인 명제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압축된 논증(condensed argument)'으로 보았다.⁸⁾ 프라이어는 A라는 가정 하에서 C에 대한 조건부 믿음의 정도를 A를 믿게 되었을

7) Lewis(1976). 그리고 다른 사소성 결과들에 대해서는 Eells and Skyrms(1994)에 있는 여러 논문들을 참조하라.

8) Mackie(1962).

경우 C에 대해 가지게 될 성향이 있는 믿음의 정도로 정의한다.⁹⁾ 그래서 프라이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A \rightarrow C)$ 에 동의하는 정도는 그가 A를 믿게 되었을 경우 C를 어느 정도 믿게 될 성향이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멜러는 모든 단순 조건문 ‘만약 A이면 C’는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믿을 추론적 성향(inferential disposition)을 표현한다고 주장한다.¹⁰⁾ 멜러에 의하면 ‘만약 A이면 C’를 n의 정도로 수용한다는 것은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n의 정도로 믿을 성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제 필자가 소개하려는 성향 이론은 이 제안 혹은 이론들과 유사한 이론이다. 특히 추론적 성향에 확률을 부여하는 방식은 프라이스와 멜러의 방식과 거의 같다.¹¹⁾ 그러나 멜러는 직설법적 조건문뿐만 아니라 반사실적 조건문도 어떤 추론적 성향을 표현하며 모든 조건문이 진리 조건을 가진다고 주장하지만, 필자는 이 견해와 달리 직설법적 조건문만이 어떤 추론적 성향을 표현하고, 직설법적 조건문은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필자가 지지하는 직설법적 조건문의 성향 이론에 의하면, 직설법적 조건문 $(A \rightarrow C)$ 를 수용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믿을 추론적 성향(inferential disposition)이 있다는 것이다. 즉, 직설법적 조건문의 수용에 관해 다음이 성립한다. (여기서 A와 C는 조건문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 문장이다.)

(4) 사람 p는 $(A \rightarrow C)$ 를 n의 정도로 수용한다 iff 만약 p가 A를 완전히 믿는다면 (그리고 여전히 이 성향을 지닌다면) C를 n의 정도로 믿을 성향을 지닌다.

(p accepts $(A \rightarrow C)$ to the degree n iff p has a disposition such

⁹⁾ 프라이스 자신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 [...] regarding a conditional credence in A given B as being the level of absolute credence in A that a person is disposed to adopt, on coming to believe that B. Price(1986), p.25.

¹⁰⁾ Mellor(1993).

¹¹⁾ 그래서 필자가 소개하려는 성향 이론은 프라이스의 견해를 발전시키고 멜러의 이론을 수정한 이론이다.

that if p came to believe A (while retaining this disposition), p would have credence n in C)

‘(A→C)를 충분히 높은 정도로 수용한다’를 간단히 ‘(A→C)를 수용한다’로, ‘C를 충분히 높은 정도로 믿는다’를 간단히 ‘C를 믿는다’로 표현한다면, (4)에서 n이 충분히 높을 때 ‘(A→C)를 수용할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믿을 추론적 성향을 지닌다’가 성립한다. (A→C)의 주장은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믿을 추론적 성향을 표현한다.

(4)에 두 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 첫째, 성향을 규정하는 조건문이 반사실적 조건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A를 완전히 믿는다면 (그리고 여전히 이 성향을 지닌다면), C를 n의 정도로 믿는다’는 반사실적 조건문으로 이해해야 한다.¹²⁾ 필자는 추론적 성향이 어떤 심적 속성인지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아니라 반사실적 조건문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보겠지만 (전건이 거짓인) 직설법적 조건문은 어떤 주관적 요소를 가지는 것으로 세계의 어떤 객관적 속성을 규정하는 데 적절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사실적 조건문은 대략적으로 루이스나 스톨네이커의 가능 세계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¹³⁾ 둘째 성향을 규정하는 조건문의 전건에 ‘여전히 이 성향을 지닌다면(while retaining this disposition)’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이 조항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향 이론이 정확하게 서술되고 여러 반론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필요하다.

성향 이론은 (A→C)의 진리 조건이 아니라 아담스 논제처럼 수용 조건(acceptability condition)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필자가 지지하는 성향 이론에 의하면 직설법적 조건문은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A→C)의 주장이 어떤 믿음을 표현하지 않고

12)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 문법적으로 미래 시제 가정법적 조건문(반사실적 조건문)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4)에서 추론적 성향을 규정하는 한국어 조건문이 반사실적 조건문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13) Stalnaker(1968), Lewis(1973) 참조.

어떤 추론적 성향을 표현한다는 것이 $(A \rightarrow C)$ 가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직설법적 조건문 $(A \rightarrow C)$ 가 진리 조건을 가진다면, $(A \rightarrow C)$ 를 주장하는 것은 그 진리 조건이 성립한다는 화자의 믿음을 표현할 것이다. 그러나 $(A \rightarrow C)$ 의 주장은 어떠한 것이 성립한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믿을 성향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성향 이론에 의하면 $(A \rightarrow C)$ 는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을 것 같다. 필자는 이후에 직설법적 조건문이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논증들을 제시할 것이다. 그전에 $(A \rightarrow C)$ 의 주장이 어떤 추론적 성향을 '표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4. 표현과 보고

어떤 문장이 어떤 믿음을 '보고한다(report)'는 것과 그 믿음을 '표현한다(express)'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¹⁴⁾ 예컨대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는 문장은 적절한 문맥에서 발화된다면,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는 화자의 믿음을 표현한다. 그래서 화자의 이 믿음이 참인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이 문장은 참이다. 일반적으로 X의 주장은 화자의 X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이 믿음이 참인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X는 참이다.

그러나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의 주장은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혹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내가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는 나의 믿음을 보고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을 가질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이 문장은 참이다.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는 나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이 문장의 참, 거짓과는 어떤 관계도 없다.

¹⁴⁾ Jackson & Pettit(1998), pp.244-245 참조.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의 주장은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는 나의 믿음을 보고하지는 않지만, 이 주장이 보고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장의 주장은, 이것이 표현하는 믿음의 명제적 내용, 즉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고(주장)한다. 그래서 이 믿음의 명제적 내용(혹은 진리 조건)이 성립할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이 문장이 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윤리학에서의 표현주의(expressivism)는 표현과 보고 사이의 이 구분을 믿음 이외의 다른 심적 상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표현주의자들에 의하면, 도덕 진술들 예컨대 ‘철수의 이 행동은 옳지 않다’의 주장은 철수의 이 행동에 대한 화자의 어떤 거부 감정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한다. 그리고 이 문장의 주장은 어떤 도덕적 실재를 보고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주장에 의해 보고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펼치는 이와 유사하게 믿음과는 다른 심적 상태인 추론적 성향에도 표현과 보고가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향 이론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믿을 추론적 성향이 있을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그 사람은 $(A \rightarrow C)$ 를 수용한다. 직설법적 조건문에 이 수용 조건이 성립하는 이유는 우리가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믿을 추론적 성향이 있을 때 그리고 오직 그 때만 $(A \rightarrow C)$ 를 주장한다는 암묵적 규약(convention)에 동의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A \rightarrow C)$ 의 주장은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믿을 화자의 추론적 성향을 표현한다. 특히 $(A \rightarrow C)$ 의 주장은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믿을 추론적 성향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믿을 추론적 성향은 세계에 관해 어떠한 것이 성립한다는 믿음이 아니다.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믿을 추론적 성향은 A와 C라는 두 명제적 내용을 가지므로 믿음과는 달리 어떤 단일한 명제적 내용도 가지지 않는다.¹⁵⁾ $(A \rightarrow C)$ 의 주장은 어떤 추론적 성향을 표현하고, 이 추론적 성향은 어떠한

¹⁵⁾ Mellor(1993), p.238 참조.

떠한 것이 성립한다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A \rightarrow C)$ 의 주장이 어떠한 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 $(A \rightarrow C)$ 의 주장은 화자가 어떤 추론적 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도 아니므로 $(A \rightarrow C)$ 의 주장에 의해 보고되는(주장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래서 직설법적 조건문은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

5. 성향 이론과 아담스 논제

필자는 앞에서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이론은 아담스 논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부 믿음의 정도를 두 절대적 믿음의 정도의 비로 정의할 때 아담스 논제는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

$$(5) a(A \rightarrow C) = b(A \& C) / b(A), \text{ 단 } b(A) \neq 0.$$

필자가 지지하는 성향 이론은 (5)가 성립할 때¹⁶⁾ 왜 이것이 성립하는지 베이즈 이론의 조건화(Conditionalization)의 도움을 받아 설명할 수 있다.¹⁷⁾ 현재 나의 $(A \rightarrow C)$ 의 수용 정도가 n 이라고 가정하자. 성향 이론에 의해 이것은 내가 A 를 완전히 믿게 된다면 C 를 n 의 정

16) 어떤 직설법적 조건문 $(A \rightarrow C)$ 에 대해, A 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A \rightarrow C)$ 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5)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Price(1986), pp.20-21과 노호진(2006a)을 참조하라.

17) 베이즈 이론에서, b 를 원래의 믿음 체계를 표상하는 믿음 함수라고 하고 b' 를 A 를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수정된 사후 믿음 함수라고 할 때, '조건화(Conditionalization)'로 알려져 있는 논제에 따르면 b 와 b'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b(A)가 0이 아니라면) \text{ 모든 } X \text{에 대해, } b'(X) = b(X | A). (=_{\text{def}} b(A \& X) / b(A))$$

말로 표현하면, A 를 알게 된 후 나타나는 수정된 사후 믿음 함수 b' 에서 X 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이전의 믿음 함수 b 에서 A 라는 가정 하에서 X 에 대한 조건부 믿음의 정도와 같아야 한다.

도로 믿을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A를 완전히 믿게 된 후, 수정된 믿음 함수 b'에서 C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n일 것이다. 조건화를 가정한다면 이 수정된 믿음 함수 b'에서 C에 대한 믿음의 정도 n은 원래의 믿음 함수 b에서 두 믿음의 정도의 비 $b(A\&C)/b(A)$ 와 같을 것이다. 역으로 나의 $b(A\&C)/b(A)$ 가 n이라고 가정하자. 조건화에 의해 내가 A를 완전히 믿게 된 후 C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n이어야 한다. 즉, 내가 합리적이려면 A를 완전히 믿을 경우 C에 대해 n의 정도로 믿을 성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향 이론에 의해 나는 $(A \rightarrow C)$ 를 n의 정도로 수용한다. 이렇게 성향 이론은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아담스 논제를 설명할 수 있다.

필자는 성향 이론의 수용 조건 (4)에 의해 아담스 논제가 설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대부분의 경험적 자료들이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제 직설법적 조건문을 주장하는지, 추론에서 직설법적 조건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이 설명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언어적 자료들을 설명하기 위해 직설법적 조건문에 진리 조건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향 이론은 A가 참이고 C가 참일 때 $(A \rightarrow C)$ 가 참이고 A가 참이고 C가 거짓일 때 $(A \rightarrow C)$ 가 거짓이고 A가 거짓일 때 $(A \rightarrow C)$ 가 진리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과 일관적이다.¹⁸⁾ 이 부분적인 진리치 할당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컨대 A가 참이고 C가 거짓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A \rightarrow C)$ 가 거짓이라는 우리의 직관적 판단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것 같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만약 비가 왔다면 그 경기가 취소되었다’에 대해, 이 조건문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이든 그리고 이 조건문이 표현하는 추론적 성향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 실제로 비가 왔고 경기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조건문은 참이라고 판단할 것이고, 실제로 비가 왔지만 경기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조건문은 거짓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 직관적인 판단은 이 부분적인 진리치 할

18) 에징턴은 특히 직설법적 조건문의 주장을 조건부 주장(conditional assertion)으로 해석할 경우 이러한 부분적인 진리치 할당이 자연스럽다고 말한다. Edgington(1995), p.290 참조.

당에 의해 직접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¹⁹⁾

그러나 직설법적 조건문에 적용되는 이 ‘참’, ‘거짓’은 다소 ‘이론적’이고 ‘부수적’인 의미에서의 ‘참’, ‘거짓’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술 문장 X에 대해, X의 주장이 보고하는 것이 성립할 경우 X가 참이고, 성립하지 않을 경우 X가 거짓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A와 C 둘 다 참인 경우 (A→C)가 ‘참’이고, A가 참이고 C가 거짓인 경우 (A→C)가 ‘거짓’이라고 말할 때, (A→C)의 주장이 보고하는 것이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A→C)가 ‘참’이거나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성향 이론에 의하면 엄밀히 말해 (A→C)의 주장에 의해 보고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A와 C 둘 다 참이라는 것을 알 경우 (A→C)가 ‘참’이라고 판단하고, A가 참이고 C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 경우 (A→C)가 ‘거짓’이라고 판단할 때, 우리는 (A→C)가 표현하는 추론적 성향을 가지는 것이 객관적으로 옳은지 혹은 객관적으로 그른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²⁰⁾

6. 인식적 관련

19) 그러나 이 판단도 수용 조건 (4)에 의해 (간접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예컨대 A가 참이라는 것을 알고 C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 경우 $b(A)$ 는 1이고 $b(C)$ 는 0일 것이므로 $b(C|A)$ 는 0일 것이고, (조건화를 가정한다면) A를 완전히 믿을 경우 C를 0의 정도로 믿을 성향을 가질 것이므로, (5)에 의해 (A→C)의 수용 정도는 0일 것이다. 즉 (A→C)가 완전히 거부될 것이다. (A→C)가 완전히 거부된다는 것은 (A→C)가 거짓이라는 직관적인 판단에 대응할 것이다.

20) (A→C)의 주장이 표현하는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믿을 추론적 성향은 A일 경우 C가 참일 객관적인 조건부 확률이 충분히 높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A와 C 둘 다 참으로 결정될 때 A일 경우 C가 참일 객관적인 조건부 확률은 1이고 A가 참이고 C가 거짓으로 결정될 때 A일 경우 C가 참일 객관적인 조건부 확률은 0이므로 이 값들이 (A→C)의 ‘참’, ‘거짓’에 대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가 거짓으로 결정될 때 (A→C)의 수용이 객관적으로 옳거나 객관적으로 그르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전건이 거짓으로 결정된 직설법적 조건문은 어떤 주관성을 가진다.

멜러는 조건문이 어떤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추론적 성향을 표현한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조건문이 진리 조건을 가지며 특히 (1)처럼 과거에 관한 직설법적 조건문은 실질 조건문의 진리 조건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1) 만약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이지 않았다면, 어떤 다른 사람이 죽였다.

(If Oswald didn't kill Kennedy, someone else killed Kennedy.)

멜러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1)은 분명히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이지 않았다'로부터 '어떤 다른 사람이 케네디를 죽였다'를 추론할 성향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성향은 오직 내가 어떤 사람이 케네디를 죽였다고 믿기 때문에만 지니게 되는 성향이다. 달리 말하면, 이 추론적 성향은 실질 조건문에 대한 믿음에 의해 야기된다. 이것이 (1)이 표현하는 추론을 현실 세계에 한정시킴으로써, [...] (1)을 진리-함수적으로 만드는 것이다.²¹⁾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멜러는 과거에 관한 직설법적 조건문 '만약 A이면 C'가 표현하는 추론적 성향은 일반적으로 ($\sim A \vee C$)의 믿음의 의해 야기되기 때문에, 이 조건문이 진리-함수적이라고 즉, ($\sim A \vee C$)의 진리 조건을 가진다고 말한다.²²⁾ 그러나 필자는 멜러의

21) '(1)'은 멜러 자신의 '(2)' 대신에 동일한 문장을 지시하는 필자의 표기이다. Mellor(1993), p.239.

22) 또한 멜러는 '만약 A이면 C'가 표현하는 추론적 성향은 ($A \supset C$)의 진리 조건이 성립할 경우에만, 참을-산출하는-목표(truth-generating-aim)를 달성하기 때문에, ($A \supset C$)의 진리 조건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Mellor(1993), p.238. 그러나 예정된 바 말했듯이 전건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후건을 추론하는 것만이 직설법적 조건문을 수용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는 아니다. '만약 A이면 C'에 대응하는 실질 조건문의 진리 조건이 성립하여도 '만약 A이면 C'를 수용하는 것은 매우 나쁜 추론적 성향을 가지는 것일 수 있다. 더 자세한 비판에 대해서는 Edgington(1995), p.304, 노호진(2007), pp.62-65를 보아라.

생각과는 달리 단순히 $(A \supset C)$ 의 믿음만으로 '만약 A이면 C'의 수용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나는 친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민지가 어제 외출했다고 믿는다. 나는 '민지가 어제 집에 없었다'를 믿기 때문에 '민지는 어제 집에 없었거나 민지는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다' ($\sim P \vee Q$)를 믿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믿음만으로는 '만약 민지가 어제 집에 있었다면, 민지는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다'($P \rightarrow Q$)를 수용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나는 ($\sim P \vee Q$)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P \rightarrow Q$)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P \rightarrow Q$)의 수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예에서 나는 ($\sim P \vee Q$)를 믿지만, ($\sim P \vee Q$)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증거 혹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sim P$ 를 지지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물론 ($\sim P \vee Q$)도 이 증거에 의해 지지되지만, 오직 $\sim P$ 의 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지된다. 대략적으로 말한다면, $(A \rightarrow C)$ 의 수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sim A$ 를 지지함으로써 $(A \supset C)$ 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sim A$ 의 지지와 독립적으로 $(A \supset C)$ 를 지지하는 증거 혹은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 증거를 가지는 것에 의해 A와 C 사이에 어떤 인식적 관련이 있게 된다. 이런 증거 혹은 정보가 없다면 $(A \supset C)$ 를 믿는다고 하여도 $(A \rightarrow C)$ 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이런 증거 혹은 정보를 가진다는 것이 $(A \rightarrow C)$ 의 수용을 보장한다. (멜러의 주장과는 달리) 단순히 $(A \supset C)$ 의 믿음이 아니라 이런 증거 혹은 정보를 가진다는 것이 $(A \rightarrow C)$ 의 수용, 즉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믿을 추론적 성향을 야기할 것이다. 필자는 대략적으로 직설법적 조건문 $(A \rightarrow C)$ 의 수용에 대해 다음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 (6) $(A \rightarrow C)$ 를 인식적으로 정당하게 수용한다 iff (i) $(A \supset C)$ 를 지지하면서 (ii) $\sim A$ 보다는 $(A \supset C)$ 를 충분히 더 강하게 지지하는 어떤 증거 혹은 정보를 가진다.

이것을 '배제'라는 점에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²³⁾

(6)' $(A \rightarrow C)$ 를 인식적으로 정당하게 수용한다 iff (i) $(A \& \sim C)$ 를 배제하면서 (ii) A 보다는 $(A \& \sim C)$ 를 충분히 더 강하게 배제하는 어떤 증거 혹은 정보를 가진다.

예를 들어 '만약 비가 심하게 온다면 그 축구 경기는 취소될 것이다'($R \rightarrow C$)를 보자. 나는 '비가 심하게 올 것이다'(R)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비가 심하게 오고 그 축구 경기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R \& \sim C$)를 배제하는 어떤 증거 혹은 정보를 가진다. 아마도 심한 비와 축구 경기가 취소되는 것 사이의 어떤 인과적 관계에 관한 정보가 이런 증거 혹은 정보일 것이다. 이 정보는 R 보다는 $(R \& \sim C)$ 를 충분히 더 강하게 배제하는 정보이다. 달리 표현하면 이 정보는 $\sim R$ 보다는 $(\sim R \vee C)$ 를 충분히 더 강하게 지지하는 정보이다. 그래서 나는 $(R \rightarrow C)$ 를 인식적으로 정당하게 수용한다.

필자는 (6)이 성립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고, 믿음 함수를 사용하여 (6)을 표현한 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간략하게 보일 것이다.²⁴⁾ $(A \supset C)$ 를 지지하면서 $\sim A$ 보다는 $(A \supset C)$ 를 충분히 더 강하게 지지하는 어떤 증거 혹은 정보는 $b(A \supset C)$ 를 높게 하면서 $b(A \supset C)$ 를 $b(\sim A)$ 보다 더 높게 하는 증거 혹은 정보일 것이다. 그러면 이 증거 혹은 정보는 $b(A \supset C)$ 를 $b(\sim A)$ 보다 어느 정도 더 높게 만들어야 하는가? 이 증거 혹은 정보는 $\sim A$ 보다 $(A \supset C)$ 를 충분히 더 강하게 지지하는 정보이므로 $(A \supset C)$ 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sim A$ 의 불확실성보다 상대적으로 충분히 더 낮도록 $b(A \supset C)$ 를 $b(\sim A)$ 보다 더 높게 만드는 증거 혹은 정보일 것이다. (A의 불확실성(uncertainty)은 A가 거짓일 확률로 기호로 $u(A)$ 로 표현되고 $1-b(A)$ 로 정의된다.) 그래서 (6)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7) $(A \rightarrow C)$ 를 인식적으로 정당하게 수용한다 iff (i) $b(A \supset C)$ 를 높게 하면서 (ii) $(A \supset C)$ 의 불확실성이 $\sim A$ 의 불확실성보다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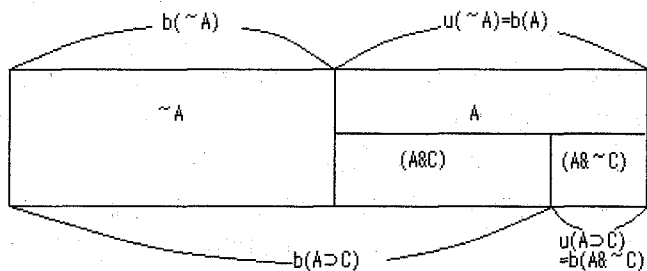
23) ' $\sim A$ 를 지지한다'를 'A를 배제한다'로 ' $(A \supset C)$ 를 지지한다'를 ' $(A \& \sim C)$ 를 배제한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24) (6)의 정당화에 대해서는 노호진(2007), pp.74-76 참조.

대적으로 충분히 더 낮도록 $b(A \supset C)$ 를 $b(\sim A)$ 보다 더 높게 하는 어떤 증거 혹은 정보를 가진다.

앞으로 때때로 (4-7)의 조건 (ii)를 ‘ $b(A \supset C)$ 를 $b(\sim A)$ 보다 불확실성에-상대적으로 충분히 더 높게 하는 어떤 증거 혹은 정보를 가진다’로 간단히 표현할 것이다. ‘불확실성에-상대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조건 (ii)에서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것은 $(A \supset C)$ 와 $\sim A$ 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A \supset C)$ 의 불확실성 $u(A \supset C)$ 는 $b(A \& \sim C)$ 와 같고 $\sim A$ 의 불확실성 $u(\sim A)$ 는 $b(A)$ 와 같으므로, 조건 (ii)에서 $(A \supset C)$ 의 불확실성을 $\sim A$ 의 불확실성보다 상대적으로 충분히 더 낮게 만드는 증거 혹은 정보는 $b(A \& \sim C)$ 를 $b(A)$ 보다 상대적으로 충분히 더 낮게 만드는 증거 혹은 정보이다; 즉 $b(A \& \sim C)/b(A)$ 를 낮게 만드는 증거 혹은 정보이다.



(그림1)

‘ $1-b(A \& \sim C)/b(A)=b(A \& C)/b(A)$ ’가 성립하므로, 결국 이것은 $b(A \& C)/b(A)$ 를 높게 만드는 증거 혹은 정보이다. ‘ $b(A \& C)/b(A) \leq b(A \supset C)$ ’도 성립하므로 조건 (ii)가 만족된다면 조건 (i)도 만족된다. 그래서 성향 이론과 조건화(conditionalization)를 가정하면 (7)이 성립한다는 것은 쉽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²⁵⁾

25) 먼저 (7)의 오른쪽 조건이 성립한다면 왼쪽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나는 (i)과 (ii)를 만족하는 어떤 증거 혹은 정보를 가진다고 가

앞에서 보았듯이 멜러는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였거나 어떤 다른 사람이 케네디를 죽였다’(OVS)의 믿음이 ‘만약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이지 않았다면 어떤 다른 사람이 케네디를 죽였다’($\sim O \rightarrow S$)의 수용을 야기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한다면 (OVS)에 대한 믿음이 이 직설법적 조건문의 수용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OVS)를 믿게 만들지만 (OVS)를 O보다 불확실성에-상대적으로 충분히 더 믿게 하는 어떤 증거 혹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조건문의 수용을 야기한다. 즉, (OVS)를 믿게 만들지만 (OVS)의 불확실성을 O의 불확실성보다 상대적으로 충분히 더 작게 만드는 어떤 증거 혹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조건문의 수용을 야기한다. 아마도 케네디의 암살을 알리지만 암살자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신문, 방송 매체 등의 보도들이 이러한 증거일 것이다. 예컨대, 철수는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였다고 믿지만,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이지 않았을 낮은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케네디는 납치되었지만 살아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자. 이러한 상태에서 철수는 (OVS)를 믿을 것이지만, 이 믿음은 거의 전적으로 O의 믿음에 기인하기 때문에 O를 믿는 정도와 (OVS)를 믿는 정도는 거의 같을 것이다. 그래서 철수는 ($\sim O \rightarrow S$)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sim O$ 를 완전히 믿게 된다면, 이전의 O의 믿음과 이 믿음으로 인해 가지게 된 (OVS)의 믿음을 버릴 것이므로, S를 믿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였다’보다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였거나 어떤 다른 사람이 케네디를 죽였다’를 충분히 더 강하게 지지하는

정하자. 조건 (ii)에 의해 $b(A\&C)/b(A)$ 를 높게 하는 증거 혹은 정보를 가진다. 조건화를 가정하면 내가 A를 완전히 믿은 후 C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높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믿을 성향을 가지는 것이 정당화된다; 즉 $(A \rightarrow C)$ 를 인식적으로 정당하게 수용한다. 역으로, 내가 $(A \rightarrow C)$ 를 인식적으로 정당하게 수용한다고 가정한다면, 나는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믿을 성향을 정당하게 가질 것이다. 그래서 조건화를 가정하면 $b(A\&C)/b(A)$ 를 높게 하는 증거 혹은 정보를 가질 것이므로 조건 (ii)를 만족하는 증거 혹은 정보를 가질 것이다. ‘ $b(A\&C)/b(A) \leq b(A \supset C)$ ’가 성립하므로 이 증거 혹은 정보는 조건 (i)도 만족할 것이다.

어떤 증거 혹은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문을 수용하지 않는다.

7. 진리 조건의 결어

이제 필자는 $(A \rightarrow C)$ 가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지하는 논증을 제시할 것이다. (7)로부터 $(A \rightarrow C)$ 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즉 A로부터 C를 추론할 성향을 가지기 위해서는 $(A \supset C)$ 의 믿음뿐만 아니라 $(A \supset C)$ 를 $\sim A$ 보다 불확실성에-상대적으로 충분히 더 믿게 하는 증거 혹은 정보를 가져야 한다; 즉 $(A \supset C)$ 의 불확실성을 $\sim A$ 의 불확실성보다 상대적으로 충분히 더 낮게 하는 증거 혹은 정보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A \supset C)$ 를 믿지만 이런 증거 혹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A \rightarrow C)$ 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A \rightarrow C)$ 는 $(A \supset C)$ 의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 만약 $(A \rightarrow C)$ 가 $(A \supset C)$ 의 진리 조건을 가진다면 $(A \supset C)$ 를 수용할 경우 $(A \rightarrow C)$ 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A \rightarrow C)$ 를 수용한다면 $(A \supset C)$ 를 수용할 것이기 때문에, 즉 $(A \rightarrow C)$ 를 수용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A \supset C)$ 를 수용한다는(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A \rightarrow C)$ 는 최소한 $(A \supset C)$ 만큼 강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이 성립한다.

- (i) $(A \rightarrow C)$ 가 진리 조건을 가진다면 $(A \supset C)$ 의 진리 조건보다 더 강한 진리 조건을 가진다.

우리는 $(A \rightarrow C)$ 를 주장함으로써 단순히 $(A \supset C)$ 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A \supset C)$ 를 $\sim A$ 보다 불확실성에-상대적으로 충분히 더 믿게 하는 어떤 증거 혹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직설법적 조건문이 진리 조건을 가진다면 실질 조건문의 진리 조건보다 더 강한 진리 조건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직설법적 조건문은 실질 조건문의 진리 조건보다 더 강한 진리 조건도 가질 수 없는 것 같다. 필자는 다음이 성립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ii) $(A \rightarrow C)$ 는 $(A \supset C)$ 의 진리 조건보다 더 강한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

필자는 이것을 지지하는 두 논증을 제시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7)을 이용한 단순한 논증만을 제시하고자 한다.²⁶⁾

(7)에 의하면, $(A \rightarrow C)$ 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A \supset C)$ 에 대한 믿음 이외에 어떤 다른 믿음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A \rightarrow C)$ 가 $(A \supset C)$ 의 진리 조건보다 더 강한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야 할 것 같다. 예컨대 내가 A와 C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컨대 신뢰하는 사람의 증언에 의해) 단지 A와 C의 진리치가 같다는 정보로부터 나는 $(A \rightarrow C)$ 를 정당하게 수용할 수 있다. 혹은 역시 A와 C의 진리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역시 신뢰하는 사람의 증언에 의해) $(A \& \sim C)$ 가 거짓이라는 정보로부터도 나는 $(A \rightarrow C)$ 를 정당하게 수용할 수 있다. 이 두 정보 모두 $(A \supset C)$ 를 지지하면서 $\sim A$ 보다는 $(A \supset C)$ 를 충분히 더 강하게 지지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A \rightarrow C)$ 가 $(A \supset C)$ 의 진리 조건보다 더 강한 진리 조건을 가진다면 이런 약한 정보로부터 $(A \rightarrow C)$ 를 정당하게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A \rightarrow C)$ 가 $(A \supset C)$ 의 진리 조건보다 더 강한 진리 조건을 가진다면 $(A \rightarrow C)$ 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경우처럼) 단순히 $(A \supset C)$ 의 정보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성립한다는 정보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제 (i)과 (ii)가 성립한다는 것으로부터 직설법적 조건문 $(A \rightarrow C)$ 가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의 논증을 정리해보자. $(A \supset C)$ 를 믿는다는 것은 $(A \rightarrow C)$ 를 수용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A \rightarrow C)$ 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A \supset C)$ 를 $\sim A$ 보다 충분히 더 강하게 지지하는 어떤 증거 혹은 정보를

26) 다른 하나는 근본적으로 예정언이 제시한 논증이다. Edgington(1995), pp.279-80, 노호진(2007) pp.80-811 참조.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일 이런 증거 혹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A \supset C)$ 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A \rightarrow C)$ 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A \rightarrow C)$ 는 $(A \supset C)$ 의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A \rightarrow C)$ 는 최소한 $(A \supset C)$ 만큼 강하기 때문에, (i) 만약 $(A \rightarrow C)$ 가 진리 조건을 가진다면 $(A \supset C)$ 보다 더 강한 진리 조건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sim A$ 보다는 $(\sim A \vee C)$ 를 충분히 더 강하게 지지하는 증거 혹은 정보는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만약 철수가 그 사과를 먹었다면 배가 아팠다’($P \rightarrow Q$)를 고려해보자. 나는 철수가 실제로 그 사과를 먹었는지 혹은 배가 아팠는지 모른다고 가정하자. 만약 내가 ‘그 사과를 먹는 것은 배탈을 야기한다’라는 인과적 정보를 가질 경우, 나는 이 조건문을 수용할 것이다. 이 정보는 ‘철수가 그 사과를 먹지 않았다’($\sim P$)보다는 ‘철수가 그 사과를 먹지 않았거나 철수가 배가 아팠다’($\sim P \vee Q$) 즉 ‘철수가 그 사과를 먹지 않았거나 철수가 그 사과를 먹고 배가 아팠다’($\sim P \vee (P \& Q)$)를 충분히 더 강하게 지지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또는 내가 ‘철수는 배가 아플 때만 사과를 먹는 습관이 있다’의 정보를 가질 경우에도 이 조건문을 수용할 것이다. 또는 명자가 나에게 단지 ‘철수가 그 사과를 먹었다’와 ‘철수가 배가 아팠다’의 진리치가 같다고 말하고 명자가 제공하는 이 정보를 내가 믿는 경우에도 이 조건문을 정당하게 수용할 수 있다.²⁷⁾ 이 마지막 경우처럼 이 조건문을 수용하도록 만드는 정보는 전건이 표현하는 사태와 후건이 표현하는 사태 사이의 사실적 관계에 대해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일 수 있다.

그래서 $(A \rightarrow C)$ 를 인식적으로 정당하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A \supset C)$ 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sim A$ 보다 $(A \supset C)$ 를 충분히 더 강하게 지지하는 어떤 증거 혹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sim A$ 보다 $(A \supset C)$ 를 불확실성에-상대적으로 충분히 더 믿게 하는 어떤 증거 혹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A가 표현하는 사태와 C가 표현하는 사태 사이의 어떤 인과적 관계와 같은 사실적 연관에 관한 증거

²⁷⁾ 이 정보도 물론 ‘철수가 그 사과를 먹지 않았다’보다 ‘철수가 그 사과를 먹지 않았거나 철수가 배가 아팠다’를 충분히 더 강하게 지지하는 정보이다.

혹은 정보들만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 조건문은 실질 조건문의 진리 조건보다 더 강한 진리 조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²⁸⁾ 그리고 직설법적 조건문의 주장은 세계의 어떤 사실적 연관에 관한 믿음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독특한 인식적 위치에서 이런 믿음 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증거 혹은 정보들은 매우 다양하다. A가 표현하는 사태와 C가 표현하는 사태 사이의 어떤 사실적 연관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단지 A와 C 사이의 인식적 관련만을 주는 어떤 정보를 가지기 때문에 (A→C)를 주장할 수도 있다. 예컨대, A와 C의 진리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A와 C의 진리치가 같다는 정보나 (A&~C)가 거짓이라는 정보로부터 (A→C)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필자는 이것이 (A→C)의 주장이 (A⊃C)의 믿음 이외에 항상 세계에 어떠한 것이 더 성립한다는 믿음을 표현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ii) (A→C)는 (A⊃C)의 진리 조건보다 더 강한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 결국 (i)과 (ii)에 의해 직설법적 조건문이 어떤 진리 조건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²⁹⁾

8. 마치면서: 직설법적 조건문과 반사실적 조건문

화자가 어떤 서술 문장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청자에게 전달하려는 것을 의도한다면, 자신의 믿음을 청자에게 전달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어떤 (참인) 믿음을 가지는 것의 유용성과 관련될 것 같다. 마찬가지로 필자는 어떤 (옳은) 추론적 성향

28) 필자는 대략적으로 말해 반사실적 조건문이 전건이 표현하는 사태와 후건이 표현하는 사태 사이의 어떤 사실적 연관에 관한 명제를 표현하며, 그래서 실질 조건문의 진리 조건보다 더 강한 진리 조건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즉, 반사실적 조건문의 주장은 이 사실적 연관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지 추론적 성향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9) (A→C)가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지하는 다른 논증들에 대해서는 Edgington(1995), pp.293-294, Bennett(2003)을 보아라.

을 가지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추론적 성향이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A \rightarrow C)$ 가 표현하는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믿을 추론적 성향은 대응하는 객관적인 조건부 확률 $Ch(A \& C)/Ch(A)$ 의 높음을 목표로 하고, 이 객관적인 조건부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아는 것은 유용하기 때문에 추론적 성향이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³⁰⁾ 직설법적 조건문은 이 추론적 성향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도구이다.

필자는 마지막으로 직설법적 조건문과 반사실적 조건문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A \rightarrow C)$ 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A \supset C)$ 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A \rightarrow C)$ 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sim A$ 보다는 $(A \supset C)$ 를 충분히 더 강하게 지지하는 어떤 증거 혹은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런 증거 혹은 정보를 가진다는 것이 $(A \rightarrow C)$ 의 수용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혹은 정보들은 매우 다양하다. A가 표현하는 사태와 C가 표현하는 사태 사이의 어떤 사실적 연관(예컨대 인과 관계)에 관한 정보들도 물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적 연관에 관한 정보 말고도 단순히 A와 C 사이의 어떤 인식적 관련만을 주는 증거 혹은 정보들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떤 사실적 연관도 없는 A와 C에 대해서도 적절한 정보가 주어지면 어떤 인식적 관련이 있게 된다. 나는 케네디가 누군지 정확히 말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암살당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이지 않았다면 어떤 다른 사람이 죽었다’를 수용한다.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태와 어떤 다른 사람이 케네디를 죽였다는 사태 사이의 어떤 사실적 연관 혹은 인과적 관계에 대한 믿음 없이도 이 조건문을 수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인식적 정보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A가 표현하는 사태와 C가 표현하는 사태 사이의 사실적 연관에 대한 믿음 때문에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믿을 성향을 가질 것이다. 예컨대 ‘내일 비가 온다면 내일 그 축구 경기는 취소될 것이다’를 보자. (‘내일 비가 온다’를 R로 ‘내일 그 축구 경기가 취소될 것이다’를 M으로

30) ‘Ch(A)’는 A의 객관적인 확률(chance)을 의미한다.

표현하자.) 아마도 어떤 특별한 인식적 정보가 없는 경우, R이 표현하는 사태와 M이 표현하는 사태 사이의 어떤 사실적 연관에 대한 믿음 때문에 R로부터 M을 추론할 성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필자는 R이 표현하는 사태가 성립하여 사건들이 진행될 경우 M이 표현하는 사태가 성립할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반사실적 조건문 ‘만약 R이더라면 M일 것이다(if it were the case that R, it would be the case that M)’의 주장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반사실적 조건문 ($A \Box \rightarrow C$)를 수용한다는 것은 A가 표현하는 사태가 성립하여 사건들의 연쇄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C가 표현하는 사태가 성립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대략적으로 말해 (A가 거짓인) 반사실적 조건문 ($A \Box \rightarrow C$)의 주장은 A가 표현하는 사태와 C가 표현하는 사태 사이의 어떤 사실적 연관 혹은 인과적 관계에 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반사실적 조건문은 화자의 어떤 추론적 성향을 표현하지 않고 세계에 관한 화자의 어떤 믿음을 표현한다. 그래서 ($A \Box \rightarrow C$)는 스톨네이커-루이스 유형의 이론이 제시하는 진리 조건, 즉 대략적으로 말해 ‘현실 세계와 가장 유사한 A 가능 세계(들)에서 C가 참이다’의 진리 조건을 가지는 것 같다.

필자는 스톨네이커가 말한 것처럼 직설법적 조건문 ($A \rightarrow C$)와 반사실적 조건문 ($A \Box \rightarrow C$)의 차이는 주관적인 양상 개념과 객관적인 양상 개념의 차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³¹⁾ 직설법적 조건문 ($A \rightarrow C$)를 정당하게 수용하게 하는 증거 혹은 정보는 A가 표현하는 사태와 C가 표현하는 사태 사이의 어떤 사실적 연관(혹은 인과적 관계)에 관한 증거 혹은 정보일 수 있지만, 이런 사실적 연관에 대해 어떤 암시도 주지 않고 단지 A와 C 사이의 인식적 관련만을 주는 증거와 정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반사실적 조건문 ($A \Box \rightarrow C$)는 A와 C 사이의 인식적 관련만을 주는 증거 혹은 정보에 의해서는 수용되지 않는다. (A가 거짓인) 반사실적 조건문 ($A \Box \rightarrow C$)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A가 표현하는 사태와 C가 표현하는 사태 사이의 어떤 사실적 연관 혹은 인과적 관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 같다.

31) Stalnaker(1984), p.112.

참고문헌

- 노호진(2006a). “조건문에 관한 성향적 분석”, 『논리연구』 제9집 제2호, pp.31-57.
- _____ (2006b). “조건문에 관한 멜러의 성향 이론과 조건문의 진리 조건”, 『철학사상』 제 23호, pp.167-197.
- _____ (2007). 『직설법적 조건문과 추론적 성향』 서울대 철학과 박사 학위 논문.
- 정인교(2002). “이가 원리 · 반사실적 조건문 · 실재론”, 『현대철학과 언어』 한국철학회.
- Adams, E. W.(1966). “Probability and the Logic of Conditionals”, in Hintikka, J. and Suppes, P. eds., *Aspects of Inductive Logic*. North Holland, pp.256-316.
- _____ (1975). *The Logic of Conditionals*. Dordrecht: Reidel.
- _____ (1998). *A Primer of Probability Logic*. Stanford: CLSI Publications.
- Bennett, Jonathan(1988). “Farewell to the Phlogiston Theory of Conditionals”. *Mind*, 97, pp.509-527.
- _____ (1995). “Classifying Conditionals: the Traditional Way is Right”. *Mind*, 104, pp.331-344.
- _____ (2003). *A Philosophical Guide to Conditionals*. Oxford University Press
- Dudman, V. H.(1988). “Indicative and Subjunctive”. *Analysis*, 48, pp.113-122.
- _____ (1992). “Probability and Assertion”. *Analysis*, 52, 4, pp.204-211.
- Edgington, Dorothy(1986). “Do Conditionals have Truth Conditions?”, in Jackson(ed.) 1991, pp.176-201.
- _____ (1995). “On Conditionals”. *Mind* 104, pp.235-329.
- Eells, E. and Skyrms, B.(eds)(1994), *Probability and Condition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bbard, A.(1981). “Two Recent Theories of Conditionals”, in

- Harper, Stalnaker and Pearce (eds.) 1981.
- Harper, W. L., Stalnaker, R., and Pearce, C. T. (eds.) (1981). *Ifs*. Dordrecht: Reidel.
- Jackson, Frank(1987). *Conditionals*. Oxford: Basil Blackwell.
- _____ (1990). "Classifying Conditionals I", *Analysis*, 50, pp.134-147.
- _____ (ed.)(1991). *Conditionals*. Oxford: Clarendon Press.
- _____ (2001). "What is expressivism?". *Philosophical Books* 42, pp.10-17.
- Jackson, Frank and Pettit, Philip(1998). "A Problem for Expressivism". *Analysis* 58, pp 239-51.
- Lewis, David(1973). *Counterfactuals*. Oxford: Basil Blackwell.
- _____ (1976). "Probabilities of Conditionals and Conditional Probabilities". *Philosophical Review*, 85, pp.297-315.
- Mackie, J. L.(1962). "Counterfactuals and Causal Laws". in R. J. Butler, ed., *Analytical Philosophy: First Series*. Cambridge: Blackwell, 1962, pp.66-80.
- Mellor, D. H.(1993). "How to Believe a Conditional". *Journal of Philosophy*, 90, pp.233-248.
- Price, Huw(1986), "Conditional Credence", *Mind* 95, pp.18-36.
- Ramsey, F. P.(1926). "Truth and Probability", in Ramsey 1931, pp.158-198.
- _____ (1929). "General Propositions and Causality", in Ramsey 1931, pp.237-55.
- _____ (1931).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London: Loutledge and Kegan Paul.
- Stalnaker, R.(1968). "A Theory of Conditionals", repr. in Harper et al. (eds.) (1981), pp.41-55.
- _____ (1975). "Indicative Conditionals", *Philosophia*, 5, pp.269-86, repr. in Jackson, F. ed. 1991, pp.136-54.
- _____ (1984) *Inquiry*. Cambridge MA: MIT Press.